



생화학 테러에는 이렇게 대응한다

전문 대책팀의 신속한 출동

경찰이나 군의 제독 부대, 생물 테러 대책반 및 화생방 기동대가 출동하여 테러의 종류와 사안에 따라 관할 경찰서장의 지휘 아래 신속하고 정확한 조치를 취한다.

- 현장 대응
 - 환자의 구출과 후송
 - 방제
 - 2차 사고 발생 예측과 긴급 조치
 - 확산 방지 조치
 - 오염도에 따라 위험 지역, 오염 제거 지역, 안전 지역으로 구분
- 통제와 응급 진료
 - 접근 금지와 소개 등 주민 통제
 - 응급 진료소 설치 및 후송
 - 해독제 투여 및 비상 진료 체계 가동
 - 경미한 환자에 대한 안내 및 상담

생물 테러 의심 환자 신고시 대응 체계

- 병·의원 신고 → 보건소 접수 보고 → 시·도 중앙 역학조사반 출동 → 병원체 확인 및 테러 가능성 평가 → 현장 지휘소 설치 및 대응
- 생물 테러 환자 관리 및 응급 대응 체계
 - 생물 테러 위기 단계별로 대응(주의단계, 위기단계, 비상단계)
 - 생물 테러에 노출된 환자 또는 의심 환자 발생시 환자 격리 및 외부 통제 가능한 격리 병상 확보
 - 발생 지역 이외 지역 병·의원과 인근 군부대 의료 인력 차출

피해 확산 방지와 재발 가능성 차단

- 국가정보원·국방부·보건복지부·환경부·경찰청 내 각 관련 부서로 구성된 합동조사반을 설치하여 범인 및 원인을 수사하고, 사건의 재발 가능성을 차단한다.
- 보건복지부와 환경부, 지방자치단체 등으로 구성된 사후 관리 및 지원팀을 설치하여 피해 범위를 최소화하고 주민의 안전을 확보한다.
 - 오염 지역 안전 여부 확인
 - 구호소 설치와 운영
 - 주민 대피 및 귀가 지도
 - 급수 중단과 비상 급수 체계 가동



생물·화학 테러 신고 체계

- 보건복지부(국립보건원)
상황실 02-352-6995(<http://dis.mohw.go.kr>)
- 환경부
(주간) 화학물질과 02-2110-6965~7(<http://www.me.go.kr>)
(야간) 당직실 02-504-9278
- 테러 의심시 119, 112로 신고